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Trade Focus

Vol.13 No.34

##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

2014년 7월

평행세계 최창환 부사장

김정덕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목차

[요 약]

|                              |    |
|------------------------------|----|
| I. 중국의 민영병원 장려정책 .....       | 1  |
| 1. 중국의 민영병원 육성배경 .....       | 1  |
| 2. 중국 정부의 민영병원 장려정책 .....    | 3  |
| 3. 중국의 의료특구 추진정책 .....       | 5  |
| II. 중국의 민영병원 현황 및 투자동향 ..... | 7  |
| 1. 중국 내 민영병원 현황 .....        | 7  |
| 2. 민영병원 투자동향 .....           | 9  |
| III. 향후 전망 및 우리의 진출전략 .....  | 10 |
| 1. 향후 전망 .....               | 10 |
| 2. 민영병원의 성공사례 .....          | 12 |
| 3. 우리의 진출전략 .....            | 1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최 창 환 부사장 (☎ 070-4823-1102, smallcom@nate.com)

김 정 덕 연구원 (☎ 02-6000-7625, jungdeok@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양화·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
  - 중국 의료기관의 진료횟수는 연평균 8.9%(’08년~’12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와 특수클리닉, 재활의료 등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중국 정부는 재정으로는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등 여타 영역은 민영병원이 담당케 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중이며,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려정책을 시행
  
- 이로써 민영병원의 수가 늘어나고 특히 대규모 자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영병원의 대형화·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중임. 또한 중국 정부는 고급 의료인프라 구축과 낙후된 의료기술의 제고를 위해 인허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의료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확대중
  - 2012년 벤처캐피탈 등의 의료서비스 관련 투자금액은 2억 1천 3백만 달러로 전년비 118%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추진중인 의료특구는 인허가, 토지가격, R&D 등 부문에 우대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최근 중국 내 공립·민영병원 수 추이>

(단위 : 개,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연평균<br>증가율(’08~’12) |
|------|--------|--------|--------|--------|--------|---------------------|
| 공립병원 | 14,309 | 14,051 | 13,850 | 13,539 | 13,384 | -1.7                |
| 민영병원 | 5,403  | 6,240  | 7,068  | 8,440  | 9,786  | 16.0                |
| 합 계  | 19,712 | 20,291 | 20,918 | 21,979 | 23,170 | 4.1                 |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 (향후전망) 중국 민영병원은 향후 고급의료 및 웰니스(Wellness) 관련 의료서비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자병원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유명 네트워크 병원들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유층 대상 VIP 병원을 설립중이며 점차 특수클리닉, 재활의료 등 웰니스 관련 과목으로 사업을 다각화
- 향후 5년간 중국 내 외자병원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20년 경 주요 의료인프라 건설이 완료되고, 현 의료정책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지금의 우호정책 기조가 변동 가능

□ (진출전략) 대규모 자금투자가 어려운 우리 의료기관은 기술적으로 우위를 지닌 과목이나 잠재 수요가 큰 새로운 과목을 사업화 하는 투자가 유리

- 과목별로는 비만관리, 어린이 성장발달 클리닉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과목 중심의 차별화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적으로는 타 외자병원의 진출이 적은 서부 내륙지역이 시장선점을 통한 브랜드 구축 등에 유리
- 전문 경영인 체제의 구축, 대관업무 담당자 확보 등 과거 진출사례에서 간과된 부분을 보완한 체계적인 진출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주요 유망 진출과목>

| 유망 진출과목         | 신수요를 통한 차별화 전략  |
|-----------------|---|
| 성형·미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의료기술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는 높지만, 상당수 국내 의사들이 현지 병원으로 출장진료를 시행해 경쟁이 격화</li> <li>▶ 노화방지, 비만관리 등 중국 내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특수클리닉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음</li> </ul> |
| 소아과, 부인과, 산후조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성장발달 클리닉, 피부알러지 클리닉 등</li> </ul>   |
| 재활의료, 성인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자원이 없어 현지 병원의 외국 병원과의 협력 수요가 큼</li> </ul>  |

- (정책적 지원)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화 경영 경험이 부족하고 대규모 해외 투자가 어려운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자금 지원이나 투자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독자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인허가 등 여러 부문의 우대정책이 시행중인 의료특구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내 해당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부

부



# I. 중국의 민영병원 장려정책

## 1. 중국의 민영병원 육성배경

- 중국 정부는 공립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난 문제를<sup>1)</sup> 보완하기 위해 1987년부터 민간자본에 의한 민영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시작
  - 공립의료체계의 지속적 확충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서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됨
    - 개별 병원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고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및 불만족이 높아,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함. 이는 도시 및 지방 의료기관의 동반악화를 야기
    - 도시 대형병원의 경우 대기시간이 급증하고 몰려든 환자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이 어려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남
  -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의 완화,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의료체계의 확충,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 등을 목적으로 민영병원의 설립을 허용
- 초창기 민영병원은 공립병원 퇴직인력이 개인진료소를 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의 일부 과목을 수탁운영하는 수준에서 시작됐고, 이후 점차 진입영역이 확대됨

1) Stanford Univ. APARC Research Center, "The Emerging Role of Private Health Care Provision in China: A Cri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Health System", 2009

□ 최근에는 중국의 소득증대와 함께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수요패턴이 다양화 됨에 따라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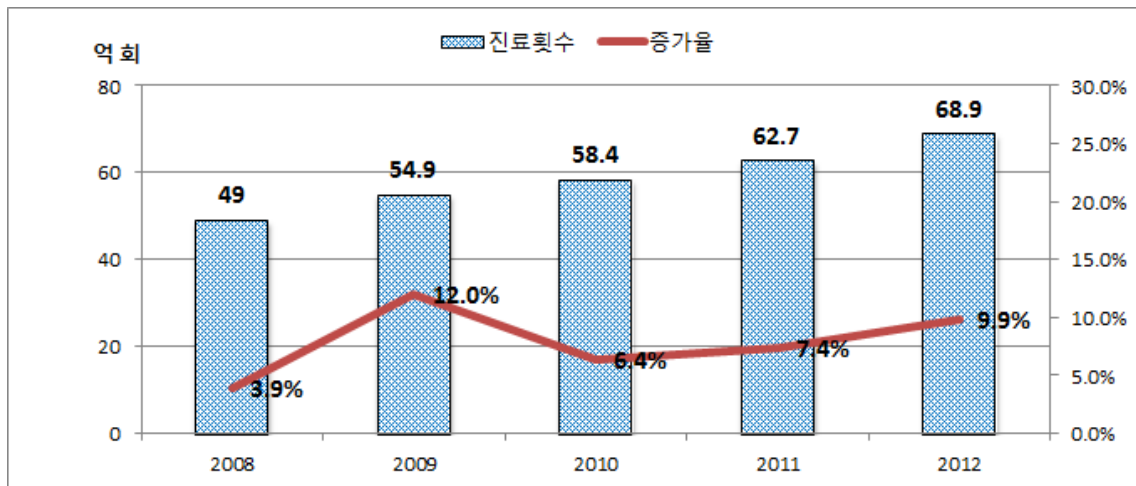
○ 이미 중국 주요 도시들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선진국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당뇨·비만 등 성인병 발병률이 급증<sup>2)</sup>

- 중국 의료기관의 진료횟수는 연평균 8.9%('08년~'12년) 증가

○ 또한 특수클리닉, 재활의료 등의 새로운 분야와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중국 중산층 대상 소비지출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 건강(6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식(66%), 자녀교육(55%)을 상회. 또한 응답자의 약 77%가 고가의 고급 건강검진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sup>3)</sup>

<중국 의료기관 진료횟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중국 보건 및 출생계획 발전통계 공보(2012)

2) 중화의학회 당뇨병분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당뇨병 환자 수가 전 세계 환자의 1/3을 차지(2011)

3) Burson-Marsteller, "China Healthcare and Wellness Consumer Survey", 2011

## 2. 중국정부의 민영병원 장려정책

- 초창기 공공의료 퇴직인력에 대한 개인진료소 등 소규모 병원 운영을 허용하던 소극적 정책 ⇒ 현재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
- 초기 허용단계에서는 민영병원을 운영할 환경 및 제도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아 민영병원들이 주로 공립병원의 틈새시장에서 기능
-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변화가 나타났으며, 대규모 투자 유치 등으로 민영병원의 대형화가 시작됨
- 최근에는 정부 재정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등 여타 영역은 민영병원이 담당하는 이원화 정책(Two-Track)을 추진
  - 중국 정부는 2013년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을 통해 민영병원 육성과 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진입장벽 완화 ▲ 지역 민영병원의 육성 ▲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 투자환경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키로 함

### <2013년 민영병원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          |  |
|----------|--|
| 진입 장벽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자산기부, 기금, 상업보험 등이 출자, 신축, 위탁관리, 공립병원의 민영화 등을 통해 의료산업 진출 가능</li> <li>▶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영역 확대</li> <li>▶ 지역 자본에 개방된 영역은 여타 자본에도 개방할 것</li> </ul>   |
| 지방병원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민영병원 설립 모델로 지정해 육성</li> </ul>  |
| 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병원 인사제도의 개혁, 민영 의료기관의 기술 및 인재 관련 협력체제 연구 실행</li> <li>▶ 공립·민영 의료기관 간 불평등 정책(시장진입, 사회보험 지정 등) 개선</li> <li>▶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수량, 규모, 입지 및 대형설비 등) 완화</li> <li>▶ 의료서비스 기관에 대한 불법 및 불합리한 납입제도의 폐지</li> <li>▶ 민영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수가 허용</li> <li>▶ 상업 보험회사의 다양화 의료상품 제공을 장려</li> </ul> |
| 자본 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을 갖춘 의료서비스 기관의 상장, 융자 및 채권발행 장려</li> <li>▶ 혁신적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국제상업대출 등 장려</li> </ul>   |

자료 : 국무원,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2013)

□ 그리고 지방정부도 민영병원의 설립 및 민간자본의 유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우대정책들을 시행

<지방정부의 주요 민영병원 장려정책>

| 구분       | 지역                                | 내용                                     |
|----------|-----------------------------------|--|
| 과목 우대    | 베이징, 랴오닝성 등                       | ▶ 고급·전문병원 및 재활, 검진, 성형 과목의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 |
| 지역 우대    | 베이징, 장쑤성 등                        | ▶ 신규, 개발구, 교외, 위성도시 등에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     |
| 금융 우대    | 장쑤성, 저장성 등                        | ▶ 지원기금 등 우대 정책 시행                      |
| 공립병원 민영화 | ▶ 지역별 부실 공립병원의 민영화 진행(장쑤성 쑤치엔시 등) |  |

자료 : 중국병원협회 민영병원발전보고(2013)

□ 또한 중국 정부는 선진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2000년 외자계 합자·합작 병원의 설립을 최초로 허용했고, 이후 외자병원의 설립조건 및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sup>4)</sup>

<중국의 외자병원 관련 주요정책>

| 발표시기     | 외자병원 관련 주요정책                         | 주요 내용  |
|----------|--------------------------------------|--|
| 2000. 02 | ▶ 도시 의약보건 체제개혁에 관한 지도의견              | - 의료시장에 대한 자본진입을 허용                                      |
| 2000. 07 |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방안                 | - 최소 투자액은 2,000만 위안 이상, 중국 자본의 최저보유 지분을 30%로 규정          |
| 2010. 12 |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의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관한 조건부 통지 | - 중외합자·합작 병원에 대해 1차로 市급 위생부서에서 심사한 뒤 省급 위생부서에서 승인토록 함    |
| 2010. 12 | ▶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장려에 관한 의견            | - 향후 외자 비중 제한을 완화하고, 자격을 갖춘 외국자본에 한해 독자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으로 밝힘 |
| 2013. 09 | ▶ 자유무역시범구 운영 종합방안                    | -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외자 독자병원 설립 허용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2014

4) 최근 국무원은 『의료개혁 심화에 관한 2014년 중점업무 통지(2014.05)』에서 외국자본의 독자병원 설립가능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3. 중국의 의료특구 추진정책

- 한편 중국 정부는 고급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기술 제고 등을 목적으로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의료특구를 추진중
  - 중국 의료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지분제한 등 인허가 및 조세규정들을 대폭 완화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
  - 해외 유명 의료시설 및 대규모 자본의 유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낙후된 국내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환자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함<sup>5)</sup>
- 현재 중국 내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의료특구가 추진중이며, 유명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
  - 의료특구는 전문 의료특구, 자유무역지구 등 종합특구 내 의료단지, 부동산 개발 구역 내 의료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의료특구 및 의료단지의 유형>

| 구분                          |          | 특징   | 사례                             |
|-----------------------------|----------|--|--------------------------------|
| 전문 의료특구                     |          | ▶ 지방정부의 의료 특구 개발   |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
| 개발구/<br>특구 내<br>의료단지        | 개발구/신구   | ▶ 일부 지역의 의료특구 개발   | 칭다오 서해안경제신구內 한중건강스마트시티         |
|                             | 자유무역지구   | ▶ 자유무역지구 허용 업종에 의료서비스 포함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
|                             | 현대 서비스업구 | ▶ 현대서비스업구 허용 업종에 의료서비스 포함                                | 선전 치안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구內 의료서비스 실리콘밸리 |
|                             | 보세구      | ▶ 보세구 허용 업종에 의료서비스 포함                                    | 중쉬 의료보세구                       |
| 부동산 개발구역內 의료단지 /종합단지 內 의료시설 |          | ▶ 개발단지內 의료규획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단지 설립<br>▶ 의료/건강 테마의 상업시설 개발 | 세브란스, 보바스의 장쑤성 이싱시 프로젝트        |

자료 : 개별 기관 인터뷰 및 홈페이지 게재 자료

5)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중국 바이오산업 분석 및 진출전략Ⅱ - 중국 의료시장”, 2011

○ 최초로 추진한 상하이 홍차오 의료특구는 2015년, 베이징은 2016년 1기 의료특구가 준공될 예정이며 1선 대도시에서 점차 2, 3선 도시로 신규 의료특구가 확장되는 추세<sup>6)</sup>

- 상하이 의료특구의 경우 인허가, 토지가격, R&D 부분에 우대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중국 내·외의 유명 의료기관 유치 를 확정함

<추진중인 주요 지역별 의료특구 현황>

| 지역       | 명칭   |
|----------|--|
| 베이징      | ▶ 국제의료서비스구   |
| 상하이      | ▶ 신흥차오(新虹桥) 국제의학센터, 국제의학 Park, 칭푸우엔다(青浦远大)건강성                                |
| 광둥       | ▶ 광저우 의료센터, 광저우 티엔허(天河) 건강미용성, 광저우 중산대로 의료관광 Street                          |
| 산둥       | ▶ 칭다오 라이시(莱西)국제의료건강성, 칭다오 홍다오(红岛)의료센터  |
| 장쑤       | ▶ 난징 장닝 의료서비스센터, 창저우 국제의료 Park, 우시 국제의료 Park                                 |
| 후베이      | ▶ 우한 판룽청(盘龙城)국제의료성, 우한 통지(同济)건강센터, 우한 광구(光谷)국제의료성                            |
| 스촨       | ▶ 루저우 서남국제의료성, 청두 국제의학성  |
| 푸젠       | ▶ 푸티엔 신안(新安) 국제의료센터, 샤먼 우웬완(五缘湾) 의료Park                                      |
| 하이난      | ▶ 하이난 버우러청(博鳌乐城)의료여행 선행구   |
| 개발구/특구 내 | ▶ 선전 치엔하이선강(前海深港) 의료서비스 실리콘밸리, 칭다오 서해안경제신구 한중건강 스마트시티, 닝샤 인촨 민허(滨河)신구 국제의료센터 |

자료 : 未来三年中国将有近20个医疗中心, 푸티엔(莆田) 자료 등

<상하이 홍차오 의료특구 진행현황>

| 계획       | ▶ 2개의 국제병원, 4개의 특수 clinic 센터 (33개 clinic) 등                              |             |                         |         |                        |
|----------|--|-------------|-------------------------|---------|------------------------|
| 진행       | ▶ 2011년 기준, 2015년 1기 준공 예정(총 1km <sup>2</sup> , 1기 0.42km <sup>2</sup> ) |             |                         |         |                        |
| 주요 유치 병원 | 명 칭  | 투자규모 (억 위안) | 건축면적 (km <sup>2</sup> ) | 병상수 (개) | 주요 과목                  |
|          | 바이저아메이라이 (白家美赖)병원  | 5.1         | 30                      | 200     | 성형외과, 미용외과, 미용피부과 등    |
|          | Parkway  | 13.0        | 85                      | 500     | 암센터, 심혈관, 심장외과, 산부인과 등 |
|          | 완키(万科)아동병원   | 4.3         | 23                      | 200     | 고가아동병원                 |
|          | 프랑스 산부인과   | 4.4         | 23                      | 200     | 산부인과, 아동과              |
|          | 의료기술 센터  | 9.6         | 87                      | -       | 검진센터, 영상센터 병리센터 등      |
|          | 합 계  | 36.4        | 247                     | 1,100   | -                      |

자료 : 중국병원협회 민영병원발전보고(2013)

6) 중국은 각 도시를 발전정도 및 경쟁력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1~4선)으로 구분하는데, 1선 도시는 중국 경제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 대도시들로 대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등임



## II. 중국의 민영병원 현황 및 투자동향

### 1. 중국 내 민영병원 현황

□ 정부 장려정책 등으로 민영병원의 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병원이 대부분임

- 민영병원의 수는 9,786개(2012년 기준)로 전체 병원의 42.2%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최근 중국 내 공립·민영병원 수 추이>

(단위 : 개,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연평균<br>증가율('08~'12) |
|------|--------|--------|--------|--------|--------|---------------------|
| 공립병원 | 14,309 | 14,051 | 13,850 | 13,539 | 13,384 | -1.7                |
| 민영병원 | 5,403  | 6,240  | 7,068  | 8,440  | 9,786  | 16.0                |
| 합 계  | 19,712 | 20,291 | 20,918 | 21,979 | 23,170 | 4.1                 |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 민영병원은 대부분 소규모 병원들로 전체 민영병원 중 규모가 큰 2급, 3급 병원이 약 6.5%에 불과

<중국 공립·민영 병원의 등급별 비중(2012)>

(단위 : 개, %)

| 규모* | 공립병원   |       | 민영병원  |       |
|-----|--------|-------|-------|-------|
|     | 병원 수   | 비중    | 병원 수  | 비중    |
| 3급  | 1,558  | 11.6  | 66    | 0.7   |
| 2급  | 5,995  | 44.8  | 571   | 5.8   |
| 1급  | 2,806  | 21.0  | 3,156 | 32.3  |
| 미지정 | 3,025  | 22.6  | 5,993 | 61.2  |
| 합 계 | 13,384 | 100.0 | 9,786 | 100.0 |

주1 : 중국은 각 병원의 의료수준 및 병상 수에 따라 3급 병원(500병상 이상), 2급 병원(100~499 병상), 1급 병원(20~99병상) 등으로 분류

주2 : 과거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다수의 민영병원이 등급지정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민영병원 활성화를 위해 등급지정을 재개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 그러나 최근 민영병원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며 치과, 건강검진 등 중고가 전문과목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신설, 네트워크 병원(7)의 확장이 증가 추세

○ 등급지정 병원 중 3급 민영병원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자병원을 중심으로 고급 대형병원도 증가세

<등급별 민영병원의 증가 추이>

(단위 : 개, %)

| 규 모      |      | 2010  | 2011  | 2012  | 연평균 증가율('10~'12) |
|----------|------|-------|-------|-------|------------------|
| 민영<br>병원 | 3급병원 | 26    | 49    | 66    | 59.3             |
|          | 2급병원 | 368   | 434   | 571   | 24.6             |
|          | 1급병원 | 2,190 | 2,728 | 3,156 | 20.0             |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 현재 주요 대형 민영병원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가의 전문병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점차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 2, 3선 도시들로 확장

<주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

| 의료<br>비 | 병원     | 주요<br>과목  | 지역별 분포 |     |     |    |    |    |    | 5 대<br>도시<br>비중 |
|---------|--------|-----------|--------|-----|-----|----|----|----|----|-----------------|
|         |        |           | 전체     |     |     |    |    |    |    |                 |
|         |        |           |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선전 | 톈진 | 기타 |    |                 |
| 高       | 허무지아   | 종합<br>병원  | 15     | 8   | 4   | 1  | -  | 1  | 1  | 93.3            |
|         | 메이중    | 부인<br>/소아 | 3      | 2   | -   | -  | -  | 1  | -  | 100.0           |
| 中高      | 이메이얼   | 성형<br>/피부 | 11     | 5   | 2   | -  | -  | 1  | 3  | 72.7            |
|         | 츠핑     | 건강<br>검진  | 51     | 16  | 3   | 3  | 4  | -  | 25 | 51.0            |
|         | 아이캉구오빈 |           | 36     | 8   | 10  | 3  | 3  | 1  | 11 | 69.4            |
|         | 루이얼    | 치과        | 24     | 7   | 8   | 1  | 5  | 1  | 2  | 91.7            |
| 中       | 따지엔캉   | 건강<br>검진  | 130    | 7   | 11  | 2  | 7  | 4  | 99 | 23.8            |
|         | 아이얼    | 안과        | 50     | 1   | 1   | 1  | 1  | 1  | 45 | 10.0            |

자료 :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7)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주요 진료, 의료기술과 마케팅 방식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을 통칭하며 운영방식에 따라 독립형, 오너형, 조합형 등으로 구분

## 2. 민영병원 투자동향

□ 중국 의료시장은 외부 자본의 조달이 비교적 자유로워 전문 투자기관 등의 민영병원에 대한 투자, 운영 및 인수 등이 활성화

○ 2012년 벤처캐피탈 등의 의료서비스 관련 투자는 18건, 금액은 2억 1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0%, 118% 이상 증가<sup>8)</sup>

○ 외국의 대형 투자기관에서도 중국의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적으로 투자

- 아시아 최대 의료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IHH는 향후 5년간 중국 등에 17개 병원을 설립해 부유층 환자를 대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sup>9)</sup>

-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등 유명 투자기관들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한 의료기관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 병원 및 대형 의료기관으로 성장

### <중국 민영병원 투자의 주요 유형>

| 자금조달 유형   | 사 례  |
|---|--|
| ▶ 상장 (IPO)<br>: 의료기관이 중국 증시에 상장   | • 아이얼 안과 - 선전 증시 상장<br>• 츠밍검진센터 - 심사 통과 후 대기 중   |
| ▶ 제약회사<br>: 상장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투자하거나 인수 후 운영                               | • 푸싱제약 - 허무지아 병원 인수<br>• 썬지우제약 - 광둥 썬지우 뇌과병원 운영  |
| ▶ 금융기관<br>: 중국 내외의 금융기관들이 중국 의료기관에 투자                                   | •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 아이강구오빈 병원에 투자<br>• (의료 전문펀드)<br>Warburg Pincus - AMCare에 투자            |
| ▶ 비의료 상장사<br>: 비의료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병원 투자, 일부는 성공후 주력 업종을 변경               | • 완지에 그룹 - 다수 의료기관에 투자<br>• 통처 그룹 - 치과병원 등에 투자 후 주력 업종을 전환                             |
| ▶ 의료(투자)그룹<br>: 전문 의료투자 그룹이 의료기관에 투자, 일부는 홍콩 등 외국 증시에 상장 후 자본을 유치해 투자실행 | • (중국) 시홍쓰 투자유한공사 - 성형외과 병원체인인 메이라이 등 투자<br>• (해외) 중 병원관리 투자그룹 - 여성, 소아과 병원체인인 마리아에 투자 |

자료 : 중국 병원협회 중국민영병원발전보고(2013), 清科研究中心

8) 清科研究中心, "China Venture Capital Annual Report 2012", 2013. 04.

9) 아시아경제, "中 민영병원 약진, 고급 의료 놓고 글로벌 경쟁", 2014. 06

### Ⅲ. 향후전망 및 우리의 진출전략

#### 1. 향후 전망

- (고급 의료 및 웰니스 주도) 중국 민영병원은 향후 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급 의료 및 웰니스(Wellness)<sup>10)</sup> 관련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민영병원 수는 2015년 공립병원의 수를 상회할 전망<sup>11)</sup>이며, 특히 중국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민영병원의 확충으로 대응 계획<sup>12)</sup>
- (규모 대형화 및 과목 다각화) 중고가 특정 과목의 클리닉 및 전문병원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민영병원은 향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발전할 것으로 전망
  - 종합병원 형태의 민영병원이 증가추세며 그 중 일부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 중고가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주요 대도시에 VIP 병원을 설립 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 건강검진, 성형, 치과 등 저리스크 중심 과목으로 발전하던 민영병원들은 점차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 및 재활의료 등으로 과목을 다각화<sup>13)</sup>
- (내륙지역 확산, 경쟁격화) 동부연안의 대도시 중심으로 확장하던 유명병원이 내륙지역으로 본격적 진출을 확대하고, 병원들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임

10) 한국웰니스학회는 웰니스(Wellness)를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건강생활을 지향하는 생활행동으로 정의

11) 중국 병원협회, “중국민영병원발전보고”, 2013. 10

12) 국무원,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2013

13) 대표적 외자병원인 허무지아 병원이 최근 암전문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을 신설

- 다수의 유명 병원들이 내륙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며, 동부 연안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의료특구가 점차 내륙 2, 3선 도시로 확산
  - 과거에는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로 홍보를 통한 지명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대형 공립병원 또는 외국병원과의 합작,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 등의 사례가 증가
    - 중국 병원협회가 510개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영병원의 81%가 임상 관련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고, 50%는 싱가포르 등 외국의 고급 병원관리 연수에 참여 의향을 밝힘<sup>14)</sup>
- (외자병원 증가) 또한 외자병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정책 등으로 진입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자병원의 중국 진출이 당분간 크게 증가할 전망
- 외자병원의 진출 방식도 독자병원 설립, 수탁운영, 현지 병원 컨설팅, 의료전문 금융기관의 투자 등 다양화
  - 향후 5년간 외자병원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기존 병원들의 브랜드 확립 및 전국적 체인망 구축 등으로 진출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정책의 목표달성, 의료특구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건설 완료, 네트워크 병원의 전국망 구축 등이 2020년경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제도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국민건강 수준을 중등발전국가<sup>15)</sup>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으며<sup>16)</sup>, 보건·의료산업을 8조 위안 이상의 규모로 육성할 계획<sup>17)</sup>

14) 중국 병원협회, “중국민영병원발전연회”, 2013

15) 국가의 발전수준이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국가를 의미하며 보통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중등수입국가(Middle Income Countries)’를 기준으로 함

16) 건강중국 2020 전략연구보고 편집위원회, “건강중국 2020 전략”, 2012

17) 국무원,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2013

## 2. 민영병원의 성공사례

□ 최근 중국 내 성공한 주요 민영병원은 ▲신수요 창출형 ▲초기 대규모 투자형으로 구분 가능

○ 신수요 창출형 병원은 개인 건강관리, 고급 치과병원 등 새로운 수요를 개척한 유형으로 중산층 이상이 주요 고객이며 높은 수준의 의료 및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을 중시

–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따른 시장선도자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안정화 후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인 확장에 나서는 것이 주요 전략

○ 초기 대규모 투자형은 외국자본과 지역자본에 의한 투자로서 주로 기존 수요를 흡수해 대형 종합병원을 설립

– 외자병원은 본국의 의료인력 및 병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주요 성공 민영병원의 유형별 특징>

|       | 신수요 창출형   | 초기 대규모 투자형   |                                     |
|-------|---|--|-------------------------------------|
|       |   | 외국자본의 투자   | 지역자본의 투자                            |
| 투자자   | 개인 또는 기타 자본   |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의료기관 또는 기업  | 푸젠성 푸티엔(莆田) 화남(華南)자본 등 중국 남방 의료자본   |
| 전략    | 신규 사업모델을 통한 시장안착(soft landing)<br>→ 투자유치로 본격적 확장              | 본국의 의료인력 초빙 및 병원관리기법 도입  | 마케팅 중심의 신속한 확장                      |
| 주요 병원 | 아이강우오빈(건강검진)<br>루이얼 (고급치과)<br>허무지아(최초 외자병원)<br>EverCare(의료미용) | 동관 동화병원(대형종합)<br>샤먼 창경병원(대형종합)<br>상하이 허신병원(고가종합)<br>Parkway(고가클리닉) | 메이라이(의료미용)<br>쑤광 (남성과)<br>마리야 (부인과) |

자료 : KHIDI, “의료서비스 중국진출 현황분석 및 맞춤형 진출 전략 연구”, 2013

### 3. 우리의 진출전략

- (진출과목)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의료과목 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수요 과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할 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대규모 자본의 투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성형, 고급 건강검진, 특수클리닉 등 웰니스(Wellness)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 의료기관들은 신수요 창출형의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유망 진출과목>

| 유망 진출과목         | 신수요를 통한 차별화 전략  |
|-----------------|---|
| 성형·미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의료기술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는 높지만, 상당수 국내 의사들이 현지 병원으로 출장진료를 시행해 경쟁이 격화</li> <li>▶ 노화방지, 비만관리 등 중국 내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특수클리닉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음</li> </ul> |
| 소아과, 부인과, 산후조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성장발달 클리닉, 피부알러지 클리닉 등</li> </ul>   |
| 재활의료, 성인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자원이 없어 현지 병원의 외국 병원과의 협력 수요가 큼</li> </ul>  |

- (진출방식) 과거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의사파견 중심의 합작은 지양하고 병원운영,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의 동반 도입 필요
- 중국 환자들은 외자병원으로부터 우수한 의료기술 뿐 아니라 친절한 고객서비스, 쾌적한 진료환경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큼
- 네트워크 병원 관리, 고급 접객서비스, 타겟마케팅 및 고객관계관리(CRM) 중심의 마케팅 기법 등은 병원의 성공을 위한 필수 역량임
  - \* 중국 최고 명문학교 중 하나인 칭화대학이 타이완 창경병원의 선진 병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합작으로 칭화창경병원을 설립('14년 말 준공예정)

(진출지역) 지역별로는 소득이 높은 동부 연안의 대도시가 우선 고려대상이지만, 최근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쟁이 덜한 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서부 내륙지역은 외자병원들의 진출이 적어 우리 병원의 신수요 개발 및 시장선점을 통한 브랜드 구축에 용이

<중국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의료 보건 지출액(연간)>

(단위 : 위안)

| 지역     | 2005                 | 2008                 | 2011                 |
|--------|----------------------|----------------------|----------------------|
| 동부     | 855.8 (100.0%)       | 940.7 (100.0%)       | 1,074.0 (100.0%)     |
| 서부     | <b>527.0 (61.6%)</b> | <b>642.9 (68.3%)</b> | <b>814.0 (75.8%)</b> |
| 중부     | 401.7 (46.9%)        | 555.0 (59.0%)        | 696.4 (64.8%)        |
| 동북부 3省 | 535.3 (62.6%)        | 821.2 (87.3%)        | 1,066.5 (99.3%)      |

주1 : ( ) 괄호 안은 동부 대비 비중

주2 : 동부[북경(北京), 상해(上海), 저장성(浙江), 광둥성(广东)], 서부[쓰촨성(四川), 산시성(陕西), 윈난성(云南), 충칭직할시(重庆)], 중부[호북성(湖北), 호남성(湖南), 산서성(山西), 강서성(江西)], 동북부[길림성(吉林), 요녕성(辽宁), 흑룡강성(黑龙江)]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2014

(면밀한 사전준비) 중국 의료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함

- 중국은 지역별로 관계 법령 및 정책환경 등의 차이가 크므로 진출을 계획중인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의료특구 등 부동산 개발 지역은 입지 분석이 특히 중요한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경우 도시 외곽에 위치해 규모가 작은 클리닉보다 중대형 병원이 적합하며, 선전 치엔하이 현대서비스업구의 의료서비스 실리콘벨리는 금융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클리닉 형태의 진출이 고려될 수 있음

- 다수의 중국 네트워크 병원은 주요 도시에 대형 본원을 세우고, 타 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형 본원을 세우는 등 지역별 진출 전략을 세분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우리 의료기관의 학습이 필요



- 의료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며,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관리할 역량 있는 대관업무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 (정부의 정책지원) 우리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화 경영 경험 등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병원은 모국 내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대규모 해외투자가 가능하였는 바 우리나라도 해외 의료기관 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자금 지원이나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한 인허가 등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의료특구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

Trade Focus Vol.13 No.34

발행인 | 한덕수

편집인 | 오상봉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4년 7월 7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